



Think Tanks & Civil Societies Program
The Lauder Institute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4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



2014 글로벌 싱크탱크 인덱스 및 보고서

제임스 맥간 소장 (James G. McGann, Ph.D.)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

펜실베이니아대학, 필라델피아, 미국

2014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GGTTI) REPORT

국문 요약*

*본 국문 요약은 2014 년 GGTTI 보고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국경제매거진(한경 Business)에서 요약·번역한 자료입니다.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



“지식과 정책의 가교 역할 지원”

싱크탱크, 정책결정자, 정책 관련 시민 사회단체가 직면한 도전과 트렌드 연구

세계 각국 싱크탱크의 역량 구축과 강화, 지속 가능성

6500 여개의 싱크탱크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싱크탱크 데이터 베이스 보유

모든 요청과 문의, 코멘트는 제임스 맥간 소장과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펜실베이니아대학 국제관계 프로그램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

전화: +1(215) 746-2928

Email: jmcgann@wharton.upenn.edu

2014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report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or mechanical, including photocopying, recording, or by information storage or retrieval system,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 에 대하여

펜실베이니아대학 러더 연구소(Lauder Institute)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 The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은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정책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연구한다. ‘싱크탱크의 싱크탱크’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TTCSP 는 공공정책 연구 기관의 새로운 역할과 특성을 조사한다. 지난 25 년 동안 TTCSP 는 세계 평화와 안보, 국제화와 지배구조, 국제경제, 환경이슈, 정보화 사회, 빈곤구제, 세계 건강보건 등과 관련 분야에서 정책과 지식의 연결을 돕는 글로벌 구상을 발전시키고 이끌어왔다. 이와 같은 국제 협력 노력은 세계적으로 시민사회와 민주적 기관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개선하는 정책 기관과 커뮤니티의 지역적,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TTCSP 는 매년 정기적으로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싱크탱크를 평가하고 랭킹을 부여하는 글로벌 싱크탱크 인덱스를 작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싱크탱크와 대학의 저명한 학자, 실무자와 다양한 협업과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약 1900 명에 달하는 협업기관, 언론인, 자선단체, 각국 정부 등이 패널로 참여하고 있다. TTCSP 는 세계의 주요 싱크탱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글로벌 싱크탱크 인덱스는 학술적 목적과 언론보도에 활용되고 기부자와 대중에게 발표됨으로써 세계의 공공정책연구 센터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TTCSP 의 목적은 싱크탱크의 성과와 역량을 증대시키고 세계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드높이는 것이다.

1989 년 설립된 TTCSP 는 싱크탱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트렌드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7 년 시작된 글로벌 싱크탱크 인덱스는 세계 각 지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싱크탱크를 평가하고 조명한다. TTCSP 는 현재 81 개국에서 싱크탱크의 역량 발전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최근 TTCSP 는 싱크탱크들의 지역별,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공공재’를 점진적으로 성취할 수 있게 하고 관련 기관간 협력을 이끌어낸다. TTCSP 의 목표는 제도적이고 국가 단위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싱크탱크들을 참여시키고 동원함으로써 싱크탱크가 보다 의미 있는 정책연구 결과를 산출해내도록 하고 공공재에 대해 대중적이고 실질적인 여론과 행동을 유도한다.

목차

서문.....	4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개선 및 보완 과정.....	5
방법론 및 평가 일정.....	11
2014 랭킹 카테고리.....	17
2014 싱크탱크 통계.....	19
2014 Global Go To Rankings 결과.....	26
(실제 순위는 GGTTI 보고서 영문 원본 참조)	

서문

2014 글로벌 싱크탱크 인덱스(GGTTI: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이 올해로 8년째 조사해 발표하는 글로벌 싱크탱크 랭킹이다. 지난 2006년부터 기부자, 정부기관, 언론, 학자 등의 요청에 의해 지역별, 글로벌 단위로 활약이 돋보인 싱크탱크의 순위를 조사해 발표하기 시작했다. 초창기부터 글로벌 싱크탱크 인덱스 보고서의 목표는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싱크탱크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었다. 이 정보를 통해 세계의 싱크탱크가 역량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2006년 이래 싱크탱크 평가 작업은 정교해지고 능률적이 됐다. 그리고 평가 대상의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평가 과정은 공공정책의 연구, 분석, 관계기관, 선택기준의 세부내용, 그리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후보 추천과 선택 과정에 의거한다. 후보 추천 작업은 TTCSP의 글로벌 싱크탱크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6618개 기관과 20000명 이상의 언론인, 정책결정자, 공공 및 민간 기부자, 리스트 외 싱크탱크, 그리고 분야별 지역별 전문가에 연락해 이루어진다. 업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그룹은 2014년 최고의 공공정책 연구소 후보를 추천하고 평가한다.

평가작업의 정교성과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TTCSP는 경력과 배경이 다양한 수백 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한다. 더불어 인터넷과 SNS 등 뉴 미디어의 등장으로 올해 인덱스는 더 많은 대중들과 평가 기준에 대해 소통하고 확대시킬 수 있었다. 후보 추천과 선정 과정의 엄격함과 세밀함 덕분에 이 랭킹은 ‘세계 아이디어 시장에 대한 내부자 가이드’로 지금까지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TTCSP는 이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수집, 연구, 분석하는 데 있어 연구비, 예산, 인력 지원에 관련한 어떠한 수익도 제공받지 않고 진행했음을 밝힌다. 동료들의 후보 추천과 선정 과정과 국제적 전문가 패널이 세계 최고의 성과를 내는 싱크탱크들의 가장 권위 있는 리스트를 가능하게 한다고 확신한다. 선정 과정을 효율화하고 완벽하게 하는 노력은 계속 진행중이다. 글로벌 싱크탱크 평가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분야별, 지역별 전문가라면 누구라도 이름과 연락처를 보내 TTCSP의 전문가 패널에 합류할 수 있다.

글로벌 싱크탱크 인덱스의 개선 및 보완 과정

매년 글로벌 싱크탱크 인덱스(GGTI)의 추천 및 평가 작업을 개선하기 위해 자문이나 제안을 받고 있으며 시스템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2006년 첫 보고서 이래 후보 추천과 평가 작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TTCSP는 지속적으로 여러 외부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후보 추천과 평가 작업을 개선해왔다. 첫째, TTCSP는 글로벌 싱크탱크 인덱스가 오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여러 랭킹 시스템처럼 글로벌 싱크탱크 인덱스는 한계를 갖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세계의 싱크탱크들의 공헌과 영향력을 연구하는데 TTCSP의 평가 결과로는 포괄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일부의 비판은 세계 싱크탱크의 공헌과 영향을 연구하는 우리의 헌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인덱스는 국제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싱크탱크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TTCSP는 세계의 더욱 많은 싱크탱크가 포함되기를 희망한다.

최근 개선 내역

TTCSP가 매년 조사하는 인덱스의 대표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0년부터 수백명의 전문가 패널은 랭킹 기준과 추천 및 순위선정 과정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인덱스는 편향을 줄이고 랭킹의 대표성을 확대하며 추천 과정의 전반적인 신뢰도와 완성도를 높이도록 몇 가지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 수년간 이뤄진 개선 작업은 다음과 같다.

2010

- 2010년 예산이 500만 달러 미만 싱크탱크 카테고리가 추가됐다. 덕분에 영향력을 갖춘 연구결과를 내놓지만 예산과 연구인력의 부족으로 순위에 들지 못했던 소규모 싱크탱크의 카테고리에 대한 작업이 가능해졌다.
- 해외 각국의 싱크탱크들을 더욱 주목할 수 있도록 미국 싱크탱크를 글로벌 랭킹에서 제외시켰다. 이로써 또한 미국 싱크탱크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이뤄지게 됐다.
- TTCSP가 정보를 보유한 6480개 싱크탱크가 참여하는 공개 후보 추천을 포함하도록 방법론이 개선되었다. 이전에는 전문가 패널만이 초기 후보 목록을

만드는데 참여했다. 이러한 개선은 참여 수준을 상당히 높였고 추천된 기관의 수준과 대표성을 대폭 개선했다

- 인덱스의 포괄성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 범위를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중동, 북아프리카(MENA)로 확대했다

2011

- 아메리카 대륙 카테고리를 2 개로 나눠 재편했다: "멕시코, 캐나다, 카리브해 톱 싱크탱크"와 "중남미 톱 싱크탱크"

2012

- 아메리카 대륙 카테고리를 더 세분화했다. ‘멕시코, 캐나다 톱 싱크탱크’와 ‘중남미 톱 싱크탱크’
- 아시아 카테고리에서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의 싱크탱크가 랭킹을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선작업을 진행했다. 아시아 섹션을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눴다 :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톱 싱크탱크’와 ‘아시아 톱 싱크탱크(중국, 인도, 일본, 한국 제외)’
- 6개 성과 카테고리 신설 : ‘베스트 독립 싱크탱크(재정적, 구조적, 법적으로 정부와 정당으로부터 독립적)’, ‘베스트 홍보 캠페인’, ‘2011-2012 싱크탱크가 만든 베스트 정책’, ‘베스트 영리 싱크탱크’, ‘에너지, 자원 정책 톱 싱크탱크’, ‘교육 정책 톱 싱크탱크’. 이러한 카테고리 확장은 싱크탱크들이 다루는 다변화된 이슈와 최근 5년 동안 등장한 새로운 조직 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신생 톱 싱크탱크’ 카테고리를 설립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하는 시도를 논의 중이다.

2013

- 인덱스의 포괄성을 확대하고자 아시아 카테고리에 3개 하위 카테고리를 마련했다: ‘아시아 태평양 톱 싱크탱크 (한국, 중국, 인도, 일본 제외)’,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톱 싱크탱크’, ‘중앙아시아 톱 싱크탱크’

- ‘외교안보 톱 싱크탱크’ 카테고리는 2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었다: ‘국방 안보 톱 싱크탱크’, ‘대외정책 및 외교 톱 싱크탱크’
- 8 개 성과 카테고리도 추가됐다: ‘주목할 만한 싱크탱크’, ‘ 베스트 소셜 네트워크 활용 싱크탱크’, ‘2 개 이상 싱크탱크의 베스트 협업’, ‘베스트 싱크탱크 컨퍼런스’, ‘잘 경영된 싱크탱크 베스트’, ‘베스트 싱크탱크 네트워크’, ‘싱크탱크가 개발한 새 아이디어 및 패러다임 베스트’, ‘베스트 학제간 연구 프로그램’

2014 년 평가 과정 및 방법

올해 평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개 후보추천 과정을 거쳐 전문가 패널에 의한 리뷰를 통해 진행됐다. 보고서의 질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몇가지 중요한 수정사항도 반영됐다. 그 중 중요했던 수정사항으로는 지역별 카테고리를 재구성한 것과 보건 카테고리를 ' 톱 글로벌 보건정책 싱크탱크' 및 ' 톱 국내 보건정책 싱크탱크'로 세분화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베스트 신규 싱크탱크'의 범위가 지난 48개월 내 또는 2011년 1월 이후 신설된 싱크탱크로 수정되었다.

2014년 평가 과정 및 방법

과거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고 인덱스(GGTI)의 투명성과 명확성 제고를 통한 질적 개선을 달성하고자 지리적 지역 구분 방식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

현실적으로 모든 대륙이 명확하게 정의된 지리적 경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역 구분은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국제연합(UN)은 아르메이나, 아제르바이잔, 사이프러스, 그루지야, 터키를 서아시아에 속한 나라로 분류하는 반면 러시아는 동유럽에 속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사이프러스와 터키, 러시아를 모두 유럽에 속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관점에서 볼 때 터키의 경우 2005년 부터 회원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도 러시아는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지역 구분 방식의 차이는 심지어 미국 정부 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지역국의 경우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사이프러스, 그루지야, 러시아, 터키를 유럽 지역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미

중앙정보국(CIA)의 경우 사이프러스는 유럽으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터키는 중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각각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치·문화적 특색에 맞춰 지역 구분을 할 경우도 문제다. 예를 들어, 러시아 같이 광활한 국토와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된 나라를 어느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가? 또한 EU 소속 싱크탱크들을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 경우 스위스, 노르웨이, 발칸 지역 싱크탱크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적절한 카테고리가 없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렇듯, 권위있는 정부 기관의 지역 구분이나 정치·문화적 특색에 따른 국가별 지역 구분에 모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리적 요인에 기반한 지역 구분이 가장 논리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 및 동유럽 카테고리의 경우 구 소련권 국가들이 인접한 서방 국가들과 차별된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 유럽의 시민사회 발전도와 수많은 싱크탱크들을 고려할 때 중앙 및 동유럽 카테고리는 유럽 싱크탱크의 대표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보고서는 과거 지역별 순위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도 수정했다. 2013년 인덱스에서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싱크탱크들이 '중앙 및 동유럽 톱 싱크탱크'와 '중앙아시아 톱 싱크탱크'에 모두 포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보고서부터는 해당 국가들의 싱크탱크들이 '중앙아시아 톱 싱크탱크'에서만 나타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싱크탱크들의 경우 2013년 인덱스에서 '중앙아시아 톱 싱크탱크'와 '아시아 태평양 톱 싱크탱크(한국, 중국, 인도, 일본 제외)'에 모두 포함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싱크탱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만 순위가 매겨지도록 수정했다. 또한 과거 중앙아시아 카테고리에 포함되었던 부탄과 네팔 싱크탱크들은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경우 지리적으로 중앙 및 동유럽, 중앙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카테고리에 모두 포함될 수 있지만 혼란 방지 및 러시아 주요 싱크탱크들 대부분이 러시아 서부 끝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중앙 및 동유럽 카테고리로 분류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중앙아시아 카테고리는 앞으로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싱크탱크들만을 포함하게 되며 터키 싱크탱크들의 경우 EU 회원국인 사이프러스와 함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또한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파키스탄 싱크탱크들의 경우 아시아 태평양 카테고리에 포함되며 중앙 및 동유럽 카테고리의 경우 러시아를 포함하며 터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사이에 위치한 국가들도 포함한다.

보건 카테고리 분류

보건 정책 분야에서 보여주는 뚜렷한 두 가지 연구 포커스에 따라 기존의 '톱 보건정책 싱크탱크' 카테고리가 '톱 글로벌 보건정책 싱크탱크' 및 '톱 국내 보건정책 싱크탱크'로 나뉘게 된다. 국내 보건정책에 연구 포커스를 맞춘 싱크탱크의 경우 특정 국가나 지역의 보건체계 개선방안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체계의 정치적 측면이나 과학적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글로벌 보건 싱크탱크의 경우 주로 개발국가의 보건체계 개선 및 접근성 강화 방안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 서아프리카 에볼라 위기와 같이 글로벌 질병 확산 방지 및 완화 체계 마련과 같은 연구도 진행한다.

올해 순위 선정 절차에는 위에서 언급한 개선점들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몇 가지 과제가 더 남아있다. 우선 인덱스의 포괄성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 특히 '전세계 톱 싱크탱크' 카테고리의 경우 - 여전히 소외되는 특정 지역들이 존재한다. 개발 지역들이 순위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로는 해당 지역 내 싱크탱크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는 점과 해당 기관들이 겪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순위에서 유럽과 북아메리카 싱크탱크들이 지속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데에는 해당 지역 내 싱크탱크의 숫자가 전세계 싱크탱크 수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 재정 등 이러한 기관들이 누리고 있는 가용 자원, 그리고 역사적으로 세계정치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역할과 함께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담론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 등을 관련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약 조건을 고려했을 때 지역별, 기능별, 특별 성과 카테고리는 전세계 싱크탱크의 활동사항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보고서는 카테고리별 목록 확대, 아시아 카테고리 세분화, 멕시코와 캐나다를 위한 별도 카테고리

및 500만달러 이하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위한 별도 카테고리 생성을 통해 인덱스가 좀더 포괄적이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미국 싱크탱크를 전세계 랭킹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미국 이외 국가에 있는 여러 싱크탱크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도 부각시키고자 한다. 미국 싱크탱크들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세계적 명성과 우위를 고려했을 때 이들을 세계 랭킹에 포함시킬 경우 미국 중심의 결과로 치우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매년 철저히, 포괄적이며 객관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본 인덱스가 편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인지한다. 순위 결정 과정에서 면담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이데올로기적, 학문적, 지역적 편향이 순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좀 더 소규모의 전문가 패널이나 언론인들에게 선정을 맡기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자들은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선정 절차를 고수할 것이다. 저자들은 투명한 절차와 세부적인 후보 선정 및 순위 집계 기준,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전 세계 참여기관 및 전문가 수 등 각종 안전장치(safeguards)를 고려했을 때, 본 순위의 일관성과 우수성을 확신한다. 전문가 패널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후보선정 및 순위결정 절차도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저자들은 본 보고서가 사용한 선정 절차에 중대한 편향성이나 와전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본 인덱스(GGTI)가 싱크탱크의 활동과 영향력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들 중 하나로 여타의 다른 측정지표들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전세계 공공정책 연구기관들에 대한 파악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을 강조하고 싶다. TTCSP는 어느 특정 기관이 인덱스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 기관 또는 그 기관이 발간한 자료, 프로그램들을 지지하거나 승인(approval)하지 않으며, 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관이라고 해서 그 기관이 질적으로 떨어지거나 영향력이나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지도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6618개 싱크탱크들이 지식과 정책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그러한 싱크탱크들 중 몇몇의 선도적 기관들을 소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뿐이다.

방법론 및 평가 일정

2014년 추천 및 평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TTCSP는 글로벌 싱크탱크 자료들을 확인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 순위에 포함될 수 있는 다수의 신규 싱크탱크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2014년 후보선정 및 평가 작업이 시작되기 1달 전에 글로벌 싱크탱크 인덱스(GGTTI) 평가조사의 시작을 알리는 공문을 각 카테고리별로 선별된 기관에 모두 발송했다. 공문은 싱크탱크들에게 TTCSP의 평가 작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안이나 의견을 물었고 한편 전문가 패널에 포함될 수 있는 후보자가 있다면 알려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2014년 평가 기준의 효율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다. 이 공문은 전년도 참여한 전문가들에게도 발송됐다.

추천 및 평가 작업 스케줄

2014년 추천 및 평가 작업 스케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후보 선정: 전문가 패널 (2014년 3월 15일~5월 31일)

2014년 인덱스 작성을 위해 지역, 기능, 특수 성과 분야 패널에 포함된 전문가들에게 후보 선정을 요청했다.

1단계: 추천 (2014년 8월 1일~9월 30일)

싱크탱크 추천에 대한 요청을 전세계 6500개 이상의 싱크탱크들과 7500명 이상의 언론인, 공공, 민간 기부자, 정책결정자에게 발송됐다. 1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관이 인덱스에 포함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진출할 수 있었다. 2013년에 선정되었던 기관들은 자동적으로 2014년 순위 후보 명단에 포함되었다.

2단계: 동료 및 전문가 순위평가 (2014년 10월 1일~11월 1일)

선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한 언론인, 공공, 민간 기부자, 정책결정자들에게 1단계를 통과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2단계 선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전문가 패널이 그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선정을 진행했다. 올해는 모든 카테고리에 걸쳐 지역 및 기능별 전문가 패널이 설치됐다. 최종 순위 조사에 포함될 기관 목록에 대한 정확도와 질을 제고하고자 이들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3단계: 전문가 패널 최종 순위 선정 (2014년 11월 1일~12월)

최종 선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 회원들에게 각각 올해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했다. 작년도 패널 회원 및 올해 후보자로 선정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2014년도 전문가 패널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을 발송했으며 그 결과 모든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었다. 패널 위원들은 2014년 11월 15일 금요일까지 자신들의 순위표와 제언사항을 제출했다.

발표: 2014년 글로벌 싱크탱크 랭킹 발표 (2015년 1월)

2014년도 글로벌 싱크탱크 랭킹은 미국 뉴욕에 위치한 UN과 워싱턴 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비롯하여 전세계 각 지역 선정기관을 통해 발표했다.

2014 글로벌 싱크탱크 인덱스 후보 추천 및 평가 기준

후보 추천 및 평가 작업에 참여한 동료 연구원 및 전문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할 것이 권장되었다. 2014 글로벌 싱크탱크 인덱스(GGTTI)의 추천 및 평가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들 수 있으며 반드시 이 항목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싱크탱크 리더십의 수준과 활동 (총 책임자 및 이사회): 싱크탱크의 미션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했는지, 미션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인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했는지, 싱크탱크의 독립성, 영향력, 수준 모니터링
- 싱크탱크 구성원의 수준 및 평판: 각 연구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확고한 위치에 있으며 기술적이고 충분한 경력과 생산성을 갖춘 학자와 분석가를 연구인력으로 필요한 만큼 확보하고 있는지의 수준
- 연구 및 분석 결과물의 수준과 평판: 정책결정자, 미디어, 대중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높은 수준이며 면밀한 정책 관련 연구의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역량
- 엘리트 학자와 분석가를 고용하거나 유지하는 역량
- 학술적 성과 및 평판: 연구와 관련한 학술적 면밀성, 싱크탱크의 학자와 분석가에 대한 공식 인정, 학술 서적의 출간 수 및 형태(서적, 학술 논문, 정기간행물), 학술 및

전문가 회의에서 발표 횟수, 학술 서적에서 싱크탱크의 연구 결과가 인용된 횟수 및 타입

- 출간의 수준, 횟수, 영역
- 싱크탱크의 연구 및 프로그램이 정책결정자 및 정책집행자에게 미친 영향력: 정책결정자, 시민단체, 정책집행자가 실제로 채택하거나 받아들인 정책 제안
- 정책결정자 사이에서의 평판: 특정 이슈나 프로그램 이름의 인지도, 발표나 공공 미팅 회수, 정책 브리핑 및 백서 발간 횟수, 법적 증거로 제공
- 독립적 연구와 분석 결과 실행의 증명: 기관에 의해 검증되고 게재된 연구와 분석이 면밀한 논거를 근거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방침, 연구 팀과 연구원들의 (재정적, 기관별 혹은 개인별) 이익과 충돌여부 공개, 사회과학 연구의 전문 기준을 마련했는지와 불편부당 원칙의 실행
- 주요 기관에 접근성: 공무원, 시민단체, 미디어, 학계 등의 주요 인사나 청중에게 도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역량
- 주요 정책집행자의 소환 할 수 있는지와 다른 싱크탱크, 정책집행자와 효과적인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 기관의 전반적인 생산물: 정책 제안, 웹사이트 방문자수, 브리핑수, 출간수, 인터뷰수, 세미나수, 연구원의 공식 게재수
- 연구, 정책 제안, 다른 생산물의 유효성: 정책 브리핑, 보고서, 정책 제안, 정책결정자 및 정책 관련 단체의 다른 보고서 등에 미치는 유효성 및 효과적 전달
- 기관 정보가 공청회, 홍보활동, 준비 법령 및 증언, 학술 논문 및 발표 준비, 연구 및 강연 등에서의 유용성
- 인쇄물, 인터넷 등을 활용해 연구물을 공유하고 주요 여론집단과의 소통하는 능력
- 미디어 평판: 언론노출 횟수, 인터뷰 및 인용 횟수

- 정책결정자, 언론인, 대중과 연계하기 위한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능력
- 웹사이트 및 디지털 영향력: 기관 웹사이트의 수준, 접근성, 효과적 관리, 디지털 트래픽 및 이용률(방문자수, 페이지뷰, 페이지이용시간, 팔로워수, ‘좋아요’ 횟수 등)
- 기금 마련과 관련한 수준, 다양성, 지속성: 장기간 싱크탱크를 후원하는 필수 재원의 조달 능력(기부, 회원비, 연간 기부, 정부 및 민간 계약, 수익)
- 효율적 운영 및 재정, 인력의 효율적 배분: 최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공적인 성과를 생산하기 위한 돈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능력
- 싱크탱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정부, 개인, 기업 등의 기부, 지원금, 계약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역량(재정적 책임)
- 새로운 지식, 혁신적인 정책 제안, 정책 대안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역량
- 학계와 정책결정집단의 간격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량
- 정책결정자와 대중의 간격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
- 정책입안 과정에서 새로운 의견을 담는 역량
- 주요 이슈와 정책 네트워크 안에서 기관이 명시되는 역량
- 기존 정책결정자들의 생각에 도전하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프로그램 발상의 성공여부
- 사회 영향력: 각국에서 삶의 질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특정 분야에서의 기관의 노력들간의 연계성(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양,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환경의 질, 정치적 권리의 질, 기관 접근성 등)

싱크탱크 영향력 평가 구조

싱크탱크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은 분명 정책 결정 과정에 관련된 정치, 행사, 집행자 등의 다양성과 갈등으로 인해 쉬운 일은 아니다. 지식과 정책 사이에서 실질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기부자, 언론인, 대중이 말하는 싱크탱크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싱크탱크가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싱크탱크는 정책결정, 환경, 시민사회에 있어 그들의 공헌이 얼마나 영향력과 설득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TTCSP의 최근 연구의 많은 부분이 싱크탱크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포괄적인 도구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연구는 싱크탱크의 결과물과 영향력 사이의 차이에 대한 명백한 혼선 때문에 제기됐다. TTCSP가 싱크탱크에게 여러 조사와 연구에서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원과 싱크탱크들은 연구 결과물의 리스트(서적, 세미나, 웹사이트 방문자수, 언론노출빈도 등)을 제출한다. 그러나 결과물이 싱크탱크 영향력을 가늠할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싱크탱크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촉매제로써 다음과 같은 계량방법을 설계했다. 싱크탱크 평가 과정에 대한 배경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고 싱크탱크의 연구물과 영향력 사이의 차이점을 명확히 밝힐 수 있다. 싱크탱크가 좋은 평가를 받길 원한다면 다음 지표에 맞춰 준비할 수 있다.

TTCSP는 동료연구원 및 전문가 패널이 싱크탱크의 영향력에 대해 평가할 때 다음의 지표를 기준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 **재원 지표:** 학자와 분석가를 고용하고 유지하는 역량; 재정적 지원의 수준, 질, 지속성; 정책 관련 다른 엘리트 집단이나 의사결정자로의 접근성 및 친밀도; 면밀하고 시의적절하며 날카로운 분석이 있는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연구원; 제도적 통용성, 네트워크의 질과 신뢰성, 정책 관련 학계, 미디어와의 주요 접촉원

- **유용성 지표:** 각국 정책 엘리트와 미디어에 의해 소위 ‘뜨는’ 기관으로서의 평판: 언론 노출, 웹사이트 방문횟수, 입법전 증언의 양과 질; 공무원 및 해당 부처의 브리핑, 공식 회의, 컨설팅; 서적 판매량; 보고서 배급수; 연구, 학술적 분석, 대중적 간행, 주요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석 등에서의 참조
- **결과물 지표:** 정책 제안 횟수 및 수준; 출간 횟수 및 수준(서적, 전기간행물, 언론 기사, 정책 브리핑 등); 뉴스 인터뷰 횟수 및 수준; 브리핑, 세미나 등의 횟수 및 수준, 정부 자문그룹에서 소속 연구원의 활동 횟수 및 수준
- **영향력 지표:** 시민단체, 정책결정자들이 채택하거나 받아들인 권고안; 이슈 네트워크 구심성; 정당, 후보, 준비위원회 등에서의 자문 역할, 수상경력; 학술논문, 공적 증언, 정책토론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미디어 등에서의 인용 및 언급; 메일링 및 웹사이트 지배력; 기존 국정운동 기조에 대한 도전의 성공

이러한 질적 평가과정과 더불어 싱크탱크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NGO와 정부관계자, 정책결정자들의 인식과 평가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는 인터뷰, 설문조사, 질의, 포커스그룹 미팅을 통해 가능하며 단순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아닌 행동이나 관계의 변화를 통한 인식의 전환 가능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영향력이란 개인과 집단의 습관이나 관계, 활동 및 행동에 변화를 줄 경우 증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적 평가는 각 싱크탱크가 제시한 정책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TTCSP는 그 결과를 순위로 나타냄으로써 비교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4 랭킹 카테고리

I. 세계 톱 싱크탱크

- 2014 올해의 싱크탱크 – 세계 톱 싱크탱크
- 글로벌 톱 싱크탱크 (미국제외)
- 글로벌 톱 싱크탱크 (미국포함)

II. 지역별 톱 싱크탱크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톱 싱크탱크
- 캐나다, 멕시코 톱 싱크탱크
- 중남미 톱 싱크탱크
- 미국 톱 싱크탱크
- 중앙아시아 톱 싱크탱크
-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톱 싱크탱크
- 아시아 태평양 톱 싱크탱크(한국, 중국, 인도, 일본 제외)
- 유럽 중부, 동부 톱 싱크탱크
- 서유럽 톱 싱크탱크
- 중동, 북아프리카 톱 싱크탱크

III. 연구영역별 톱 싱크탱크

- 국방, 안보 부문 톱 싱크탱크
- 국내 경제정책 부문 톱 싱크탱크
- 교육정책 부문 톱 싱크탱크
- 에너지, 자원 정책 부문 톱 싱크탱크
- 환경 부문 톱 싱크탱크
- 대외정책 및 외교 부문 톱 싱크탱크
- 글로벌 보건정책 부문 톱 싱크탱크(2014 년 신설)
- 국내 보건정책 부문 톱 싱크탱크
- 국제개발 부문 톱 싱크탱크
- 국제 경제 정책 부문 톱 싱크탱크

- 과학, 기술 부문 톱 싱크탱크
- 사회 정책 부문 톱 싱크탱크
- 투명성, 굿 거버넌스 부문 톱 싱크탱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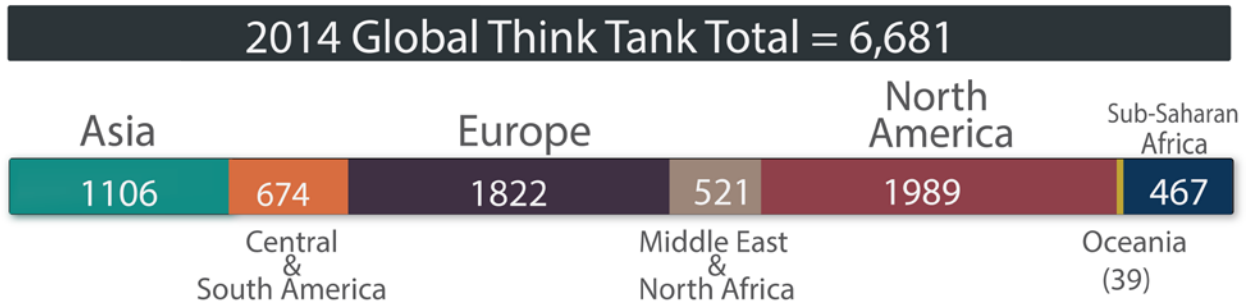
IV. 특별 성과별 톱 싱크탱크

- 베스트 홍보 캠페인
- 베스트 영리 싱크탱크
- 베스트 정부 산하 싱크탱크
- 2개 이상 싱크탱크 간 베스트 협업
- 잘 경영된 싱크탱크 베스트
- 싱크탱크 개발 신 아이디어 및 패러다임 베스트
- 베스트 신생 싱크탱크
- 싱크탱크가 만든 베스트 정책연구/보고서 2013-2014
- 베스트 싱크탱크 컨퍼런스
- 베스트 싱크탱크 네트워크
- 베스트 정당 산하 싱크탱크
- 베스트 학제간 연구 프로그램
- 베스트 대학 부설 싱크탱크
- 베스트 소셜 네트워크 활용
- 주목할만한 싱크탱크
- 베스트 대외관계/공공 참여 프로그램
- 베스트 인터넷 활용
- 베스트 언론(인쇄, 디지털) 활용
- 베스트 혁신 아이디어/제안
- 베스트 공공정책 영향력
- 베스트 정책 지향 공공프로그램
- 연간 예산 500 만달러 미만 톱 싱크탱크

2014 싱크탱크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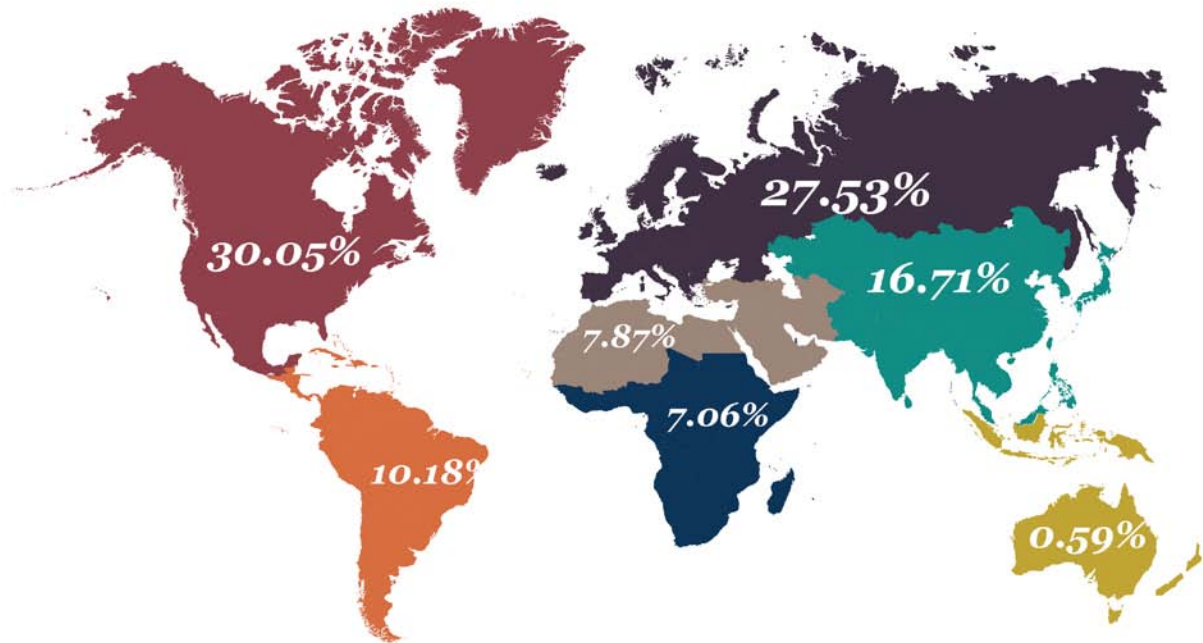
2014 년 세계 싱크탱크 수

Number of Think Tanks in the World in 2014



2014 세계 싱크탱크 수는 2014 년 12 월에 수집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함

지역별 싱크탱크 분포



국가별 싱크탱크 보유 순위

Rank	Country	Number of Think Tanks
1	United States	1830
2	China	429
3	United Kingdom	287
4	Germany	194
5	India	192
6	France	177
7	Argentina	137
8	Russia	122
9	Japan	108
10	Canada	99
11	Italy	92
12	South Africa	87
13	Brazil	82
14	Sweden	77
15	Switzerland	71
16	Mexico	60
17	Egypt	57
17	Netherlands	57
18	Israel	56
19	Spain	55
20	Romania	54
21	Belgium	52
21	Taiwan	52
22	Bolivia	50
23	Ukraine	47
24	Nigeria	46
25	Palestine	44

국가별 싱크탱크 분포

SUB-SAHARAN AFRICA		ASIA		CENTRAL AND EASTERN EUROPE		WESTERN EUROPE	
Angola	4	Afghanistan	6	Albania	10	Andorra	1
Benin	10	Armenia	14	Belarus	12	Austria	40
Botswana	9	Azerbaijan	14	Bosnia and Herzegovina	13	Belgium	52
Burkina Faso	14	Bangladesh	23	Bulgaria	33	Denmark	34
Burundi	2	Bhutan	1	Croatia	10	France	177
Cameroon	21	Brunei	1	Czech Republic	27	Germany	194
Cape Verde	2	Cambodia	10	Estonia	17	Greece	35
Central African Republic	2	China	429	Finland	28	Iceland	7
Chad	3	Georgia	14	Hungary	41	Ireland	14
Congo	3	Hong Kong	30	Kosovo	3	Italy	92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7	India	192	Latvia	11	Liechtenstein	2
Cote d'Ivoire	12	Indonesia	27	Lithuania	19	Luxembourg	6
Eritrea	5	Japan	108	Macedonia	16	Malta	4
Ethiopia	13	Kazakhstan	7	Moldova	9	Monaco	1
Gabon	2	Kyrgyzstan	8	Montenegro	4	Netherlands	57
Gambia	6	Laos	3	Poland	41	Norway	15
Ghana	37	Macao	1	Romania	54	Portugal	21
Guinea	2	Malaysia	18	Russia	122	San Marino	1
Guinea-Bissau	1	Maldives	6	Serbia	24	Spain	55
Kenya	23	Mongolia	7	Slovakia	18	Sweden	77
Lesotho	2	Nepal	8	Slovenia	19	Switzerland	71
Liberia	3	North Korea	2	Ukraine	47	United Kingdom	287
Madagascar	5	Pakistan	19			Vatican City	1
Malawi	15	Philippines	20				
Mali	9	Singapore	6				
Mauritania	2	South Korea	35				
Mauritius	9	Sri Lanka	14				
Mozambique	4	Taiwan	52				
Namibia	11	Tajikistan	4				
Niger	4	Thailand	8				
Nigeria	46	Turkmenistan	1				
Rwanda	4	Uzbekistan	8				
Senegal	16	Vietnam	10				
Seychelles	3						
Sierra Leone	1						
Somalia	6						
South Africa	87						
South Sudan	2						
Swaziland	4						
Tanzania	4						
Togo	4						
Uganda	11						
Zambia	9						
Zimbabwe	24						

CENTRAL AND SOUTH AMERIC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NORTH AMERICA		OCEANIA	
Anguilla	1	Algeria	12	Canada	99	Australia	29
Antigua and Barbuda	2	Bahrain	7	Mexico	60	Fiji	1
Argentina	137	Cyprus	11	United States	1830	New Zealand	5
Aruba	1	Egypt	57			Papua New Guinea	2
Bahamas	2	Iran	34			Samoa	1
Barbados	9	Iraq	42			Vanuatu	1
Belize	4	Israel	56				
Bermuda	3	Jordan	40				
Bolivia	50	Kuwait	11				
Brazil	82	Lebanon	27				
British Virgin Islands	1	Libya	4				
Cayman Islands	1	Morocco	33				
Chile	42	Oman	3				
Colombia	40	Palestine	44				
Costa Rica	37	Qatar	9				
Cuba	18	Saudi Arabia	7				
Dominica	3	Sudan	5				
Dominican Republic	29	Syria	6				
Ecuador	18	Tunisia	38				
El Salvador	14	Turkey	31				
French Guiana	1	United Arab Emirates	14				
Grenada	1	Yemen	30				
Guadeloupe	4						
Guatemala	12						
Guyana	3						
Haiti	2						
Honduras	10						
Jamaica	6						
Martinique	2						
Montserrat	1						
Nicaragua	10						
Panama	12						
Paraguay	27						
Peru	32						
Puerto Rico	5						
St. Kitts and Nevis	1						
St. Lucia	2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1						
Suriname	2						
Trinidad and Tobago	10						
Turks and Caicos Islands	1						
United States Virgin Islands	1						
Uruguay	17						
Venezuela	17						

미국 주별 싱크탱크 수

State	Number of Think Tanks
D.C.	396
Massachusetts	176
California	173
New York	146
Virginia	105
Illinois	55
Maryland	50
Texas	47
Connecticut	45
Pennsylvania	42
New Jersey	35
Colorado	31
Florida	31
Michigan	31
Georgia	29
Ohio	25
Minnesota	24
North Carolina	23
Washington	23
Wisconsin	22
Arizona	21
Indiana	21
Maine	20
Rhode Island	20
Tennessee	19
Missouri	18
Alabama	16
Kansas	16
Oregon	16
New Hampshire	13
Hawaii	12
Kentucky	11
Oklahoma	11
Iowa	10
Louisiana	10

Mississippi	10
Arkansas	8
Montana	8
Nebraska	7
New Mexico	7
Utah	7
South Carolina	6
West Virginia	6
South Dakota	5
Vermont	5
Idaho	4
Nevada	4
North Dakota	4
Alaska	3
Delaware	3
Total	1830

2014 Global Go To Rankings 결과

2014년 싱크탱크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TTCSP는 이 조사결과가 특정 싱크탱크나 그 출판물, 프로그램 등을 지지하거나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이 조사에 추천되지 못했다고 해서 성과가 좋지 않다거나 수준과 유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드시 볼 수 없다. 6618개의 싱크탱크는 모두 지식과 정책의 격차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우수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세계의 주요 싱크탱크 중 일부를 조명하는 것 뿐이다.

2014년 싱크탱크 랭킹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순위표는 영문 보고서 원본 참조)-



TTCSP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 © 2015, Lauder Institute, University of Pennsylvania.

All rights reserved. Except for short quotes, no part of this document and presentation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or mechanical, including photocopying, recording, or by information storage or retrieval system,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